지리산 山寺에서 흠뻑 빠지는 선율

문수암 7월 27일 산사음악회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산사음악회가 지리산 산사에서 개최된다.

지리산 산청 문수암(주지 기영)은 7월 27일 오후 7시 30분 경내에서 제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한 산자락에 위치한 문수암은 지역민들과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마련,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번 산사음악회 프로그램은 성악가 바리톤 신화수, 피아노 임동창, 창원남성합창단,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이 참여하며, 곡명은 △사랑의 인사 △세레나데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그리운 마음 △아리아 △루마니아 춤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광야에서 △1300년의 사랑이야기 등이다.

주지 기영 스님은 "무덥고 지친 여름 산사에서 쉼을 얻고 음악을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산사서 휴식을" 마음 쉬는 토요일

7월 6~7일 경내서 열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7월 6~7일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마음 쉬는 토요일'을 경내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보 62호 미륵전에 깃든 이야기를 소재로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들로 준비됐다.

전주의 젊은 소리꾼 최재구 · 최재원이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 이야기'를 통해 금산사의 역사와 전통을 특유의 해학과 판소리를 엮어 해설하고, 서예 대가인 심원암 원광스님 지도로 미륵전 탁본체험 등이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자연(광주여상3) 학생은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자연과 함께 하는 1박2일의 일정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숙소와 프로그램 모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오직 아는 것, 이것만이 진실임을 깨달아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희의 '화엄법석' 다시 이어진다

부산 범어사, 1000일 화엄법회 회향 후 입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가 1000일 동안 진행한 53선지식 화엄법회를 회향한다. 매월 초하루 화엄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법문과 화엄성중을 부르는 기도로 도량은 가득 찼고, 화엄종찰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평가다. 범어사는 오직 불자들이 화엄의 도리를 알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며 회향과 동시에 새롭게 입재를 알린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53선지식 1000일 화엄법회' 회향 및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범어사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경내 보제루에서 '범어사 53선지식 1000일 화엄대법회-3일 특강'으로 1000일 화엄법회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법석은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무비 스님, 지안 스님이 릴레이 특강으로 화엄의 가치를 알리고 소개했다. 이후 매월 초하루마다 보제루에서 전국의 선지식과 대강백이 〈화엄경〉을 설하며 보살도를 강조했다. 그동안 화엄법회의 법문을 담당한 법사 스님은 보광 스님(前해인사 주지), 청화 스님(前조계종 교육원장), 성파 스님(통도사 방장), 종진 스님(前해인사 전계대화상), 원학 스님(前조계사 주지), 종범 스님(前중앙승가대 총장), 법산 스님(동국대 이사장),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성우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태원 스님(前중앙승가대 총장) 등 내로라하는 대강백들이었다.

8월 1일 보제루서 새 출발해
국내 화엄 대강백 초청 눈길
입재 맨 방장 지유 스님 법문
"회향은 입재, 더욱 정진하라"

다가올 회향 및 입재법회 법문은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이 맡는다. 지유 스님은 선으로 본 화엄의 세계를 풀어 줄 것으로 대중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범어사는 다가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53선지식 1000일 화엄법회' 회향 및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2016년 입재법회 당시 모습.

범어사는 매월 법회 외에도 〈화엄경〉 강설과 사경을 나눠 꾸준히 공부하도록 이끌었으며 화엄성중 기도를 매일 진행해 각 근기에 맞는 수행 정진을 제시, 불자들의 성장을 도모했다.

화엄법회에는 매월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화엄법회 주제와 맞는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법회 때마다 법보시하고 사경집도 법회 강설과 맞는 품으로 나눠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1000일 동안 화엄신중기도가 이어졌다.

주지 경선 스님은 "근기가 다른 불자들을 위한 방편이자 기도를 통한 내면 성장과 가피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범어사도 역대 가장 큰 불사를 담당 중인데 기도의 가피인지 원만히 해결되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했다.

범어사 53선지식 화엄법회는 회향 후 바로 입재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선 스님은 "회향을 맞고 새로운 마음, 새 각오로 출발할 것"이라며 "더욱 정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엄 도리 드러나야 불자들의 참된 회향"

인터뷰 |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1000일을 맞아 불자님들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자신의 삶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화엄의 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향입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1000일 동안 이어온 53선지식 화엄법회 회향을 맞아 삶 가운데 보살도를 실천하고 화엄 불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했다. 경선 스님은 "방대한 화엄경의 도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쓰면 사람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1000일 동안 이어진 화엄법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불자들이 성장했고, 외형적으로는 범어사가 더욱 커졌다. 화엄종찰로 위상을 높이고 알리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운산에 '녹차문화관광산업' 추진

선운사 · 고창군 · 주식회사 LF 업무협약 체결, 사업계획 구성



선운사 스님과 고창군 관계자 등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의 녹차밭을 활용한 차문화 문화관광산업이 추진된다.

고창 선운사와 고창군(군수 유기상), (주)LF그룹은 7월 10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선운산 녹차밭 문화관광산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녹차밭 실소유주인 선운사는 (주)LF그룹에 일정기간 사용권을 인정하고, (주)LF는 녹차정원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복합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해 숙박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선운사 녹차밭 복합공간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먼저 녹차밭 사잇길을 거닐며 주변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된다. 여기에 선운사 브랜드를 활용해 중국의 서호용정차, 일본 교토우지차 등과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명차를 육성하고, 제품 생산과 체험, 시음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 건립도 계획돼 한 해 260만 명에 달하는 선운산 방문객들과 고창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협약식에서 "삼지장보살님이 상주하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사에 녹차정원이 조성돼 더 많은 인연과 귀한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차나무 자생의 북방한계선인 선운사 일대는 작설차 맛이 일품하다. 참새 작(雀)자와 혀 설(舌)자를 쓴 작설차는 참새 혓바닥처럼 생긴 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며 은은한 향에 맛이 부드럽다. 고창 출신의 조선후기 대표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 선생이 쓴 〈이재난고〉에서도 선운사 차의 유래와 제조법의 특색, 그 차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한편 (주)LF그룹은 LF푸드와 라푸마코리아, 동아TV, 구르메F&B코리아 등 38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생활문화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다각화(외식 · 숙박 등)를 통해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족사랑 한걸음, 사회변화 꿈꿔요"

부산불교교육대, 2019 가족사랑 걷기대회 동참

부산불교교육대학이 가족사랑 실천을 강조하며 걷기대회에 동참 후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7월 6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함께하는 2019년 가족사랑 실천 건강 걷기대회'에 동참했다.〈사진〉 이 대회는 부산시민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행사 취지에 공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LED-TV와 자전거 등 행사경품을 찬조하고, 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학생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또 홍보부스를 마련해 부산불교교육대학이 펼치는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실버 패션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숲길 걷기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가족페스티벌과 경품 추첨 순으로 마무리됐다.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자살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부산, 살기 좋은 부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양성평등 주간에 맞춰 부산시와 부산여성신문이 주관 주최했으며 대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유순희 부산여성신문 대표 등 사부대중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며,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거리 홍보캠페인' '자비연탄 나눔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